

[붙임] 에세이 작성 서식

제 목	커뮤니티에 따른 혐오사상		
소속 대학	한림대학교	소속 학과	나노융합스쿨
학 번	2017	이 름	김**
이메일		연락처	

커뮤니티에 따른 혐오사상

인터넷이 극도로 발달하고 거의 모든 인구들이 스마트폰을 가진 이 세상이 된 순간 인터넷에서 쏟아지는 정보는 21세기를 사는 인간에게는 피할수 없는 홍수이다. 쏟아지는 정보속과 빠르게 변하는 밈(유행), 사건사고들 과연 사람들은 이 정보들을 어디서 얻을까?바로 커뮤니티이다.

2020년 3월 커뮤니티 총 이용자 수는 대략 900만 정도로 추정되었고 일일 트래픽 양과 작성되는 글 수는 셀수도없이 많다. 이 셀수도 없이 쏟아져나오는 글속에서 사람들은 혐오를 배우기 시작한다.

각 사이트별로는 성향이라는게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으로 정치성향별로 나누자면 진보성향으로 에팸코리아, 루리웹, 클리앙, 오늘의유머라는 사이트들이 있으며 보수성향으로 디시인사이드, 일간베스트 등의 사이트들이있다. 또한 여초와 남초사이트가 존재하는데 네이트판, 인스티즈, 여성시대, 뽀뿌등이 대표적인 여초사이트이다. 보통 커뮤니티별로는 성향이 존재하며 각 사이트에 반대성향 글이 올라오는순간 비추천과 수많은 욕설, 조롱 댓글들에 돌을 수없이 맞게 될것이다.

자 만약 당신이 커뮤니티에 처음 발을 딛는 사람이라 가정하자. 글을 읽고있는 당신이 아마 커뮤니티에 물들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다시 한번 말하겠다. 이건 가정이고 예시이다. A커뮤니티에 처음들어간 당신은 아무생각없이 자극적인 제목의 커뮤니티글을 클릭했다. 제목은 '여 아이돌 노출무대.gif' 여성들이 성적콘텐츠로 희롱당하는 글을 보며 댓글들을 본다. '지린다' '개쩨다'등 각종 수위높은 댓글들이 달려있다. 그리고 당신은 다음 인기글을 클릭한다 '조국교수에게 욕설을 하는 별레들.jpg' 조국교수에게 욕설을 하는 타 커뮤니티 사람들을 캡쳐한 사진이 올라오는 글을 보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반박과 욕설, 비판등의 댓글들을 다는것을 당신은 보았다. 당신은 조국교수에대해 처음으로 접하는 글이다. 과연 당신은 조국교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것인가? 비판? 옹호? 일부는 자신의 성향대로 걸러 판단할 수 있지만 쏟아지는정보를 여과없이 받아들이는 21세기 현대인들중에 하나인 당신은 아마 곧이곧대로 믿

게될 것이다. 당신은 그렇게 정보수용을 하고 다른 B커뮤니티로 옮겨가 반박글을 보았다고 생각해보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할것인가? 한번 고정관념이된 생각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당신과 함께 같은 생각을 하는사람들이 수없이 반박댓글들을 달아준다. 마치 같은편이 있는듯한 느낌이다. 아마 당신은 그 글에 반박댓글을 정성스럽게 달아줄것이다. 그리고 얼마후 대댓글을 본다. "A커뮤니티 첩자 또왔네", "스파이는 꺼져라", "그걸 그렇게생각하네 지능 수준" 등의 댓글들이 달린다. 당신은 이 댓글을 본순간 아마 화가 머리 끝까지난다. '그 커뮤니티사람들이 이게 맞다고 했는데...' 뭐지? 얼마 안있어 키보드 배틀이라고 불리는 인터넷 전쟁이 시작된다. 좌표를 각자의 커뮤니티에 뿌리고 그렇게 인터넷 기사들은 참전한다. 피흘리는사람, 죽는사람 없는 전투가 지속된다. 그리고 이 글은 내일 모두에게 잊혀진다. 이렇게 쏟아지는 글들과 인터넷 전쟁들이 지금도 랜선속에서는 수없이 일어나고있다. 전쟁들이 일어나고 상대방의 댓글들을 캡쳐하고 마치 시체효시를 하듯이 조롱을한다. 이렇게 내포하고있는 사상들이 적립되는 순간 진보, 보수성향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것이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프로파간다, 인터넷 냉전전쟁이라고 글쓴이는 생각한다. 이뿐만 아니라 여초, 남초사이트들의 남여, 여남혐오, 흑인, 동남아인들과 같은 유색인종들의 유머적 소모, 확인되지않은 범죄에대한 무비판적 악성댓글, 혐오등이 각 커뮤니티에 수없이 수천만개의 글들이 작성되고 잊혀지고 작성되고 잊혀졌다고 생각되는순간 혐오들은 머릿속 깊숙히 남아 당신은 하나의 훌륭한 혐오인간이 되었다.

지식인들의 정보공유창구였던 커뮤니티들이 왜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 제일 처음의 시작은 노무현 참여정부시절때 인터넷 카페들로인한 인터넷정치 시작이라고 추정된다.(경희대학교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이택광 교수 출처) 인터넷의 보급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하면서 인터넷의 역할은 더욱 가속화되기 시작했고 지금에 이르는 혐오가 넘쳐나는 커뮤니티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인터넷이 실제 정치선전에 수없이 사용되고있고 각자 서로의 밥그릇과 혐오들을 전파하기위해 인터넷 교주들은 오늘도 글을 뿌리고있다. 혐오가 즐비하는 세상. 그 누구도 원하지않을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혐오가 사라질것이라고 생각은 절대 하지않는다. 인터넷이 없는 예전시대에도 직업귀천에따른 혐오, 집시, 유대인과같은 인종에대한혐오 각 나라에대한 혐오등이 인터넷으로 옮겨왔을 뿐이다. 그래도 이를 억제하고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궁극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는 경제회복에 따른 개인적 풍요의 충족이다. 하지만 이는 너무 이상적이고 실현되기가 어려운 일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방법은 첫번째로 인터넷의 반 익명성화이다. 반익명성화가 무엇이나면 바로 기본적인 정보는 모두 가리고 익명성을 하되 인터넷상에서의 존재가 하나인것이다. 인터넷상에서는 각 사이트마다 로그인을하고 닉네임을단다. 하지만 이를 모두 통합하여 하나의 인터넷아이디 하나의 닉네임으로 만드는것이다. 즉 A사이트에서 글을써도 B사이트에서 글을써도 사람들은 모두 한사람이 작성한것처럼 보이는것이다. 온라인게임에서 캐릭터를 하나 만들듯 인터넷 세상에서의 자신의 캐릭터를 하나 만드는 것이

다. 대부분의 혐오발언들은 익명성을 기반으로하고있다.-이는 현실에서 혐오발언을 하고다니는 사람들이 몇명이나 되는지 생각하면 잘 알수 있다.-이에 많은 전문가들은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가 문제가 되는것은 인터넷은 애초에 자유로운 세상을 표방하고 나왔다. 많은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에대해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개인정보의 문제점등에 대해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고있는 실정이다. 이때 반 익명성화가 도움이 되는것이 무엇이나 하면 차단과 관리및 본인 인터넷상의 정보가 모두 노출되어 있으므로(구글검색으로 아이디를 검색하면 작성글이 대부분 나오게 된다) 글을 작성하고 댓글을 다는데 조심스러워 진다는 것이다. 또한 익명성이 어느정도 보장되어있으므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도 합리적으로 보일 수가 있다. 이방법이 실현성이 없는 이야기가 아닌게 인터넷 아이디를 만들때 보통 핸드폰인증을 기반으로 본인확인을 하고 아이디를 만든다. 이때 본인의 핸드폰이 인증이되면 통합아이디로 바로 로그인할 수있는것이다. 물론 보안이 필요한 사이트들은 따로 만들거나 otp, 추가적 암호등을 입력하게하면 된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사회적 교육이다. 즉 정보를 수용하는 방법과 습득하는 능력을 길러주는것이다. 가장 기초적이고 현실성이 있는 방법이다. 모든 사람들이 해결책을 생각해보라하면 생각하는 내용이지만 실현하기 어려운 부분중에 하나이다. 교육이라는것은 효과가 나타나기위해서는 오랜시간이 걸리며 교육을 하는 10대들이 지금 it세대의 주류가 되기위해서는 최소 20~30년정도 걸리는 일이다. 또한 인터넷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있어 교육방법과 교육내용또한 많은 충돌이 있을것이다. 하지만 평화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모든 인간들에게 보편적으로 영위해야할 가치중 하나이지만 지키기 어려운것처럼 인터넷 정보를 습득하는 방법을 교육하는것도 지키기 어렵지만 반드시 행해나가야 할것이다.

세번째 방법으로는 혐오를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성향을 가진다. 혐오적 생각을 하게된다. 이는 당연한 현상이다. 인간이 누군가를 혐오한다는것은 인간의 본능에 새겨진 각인이다.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한다는것이다. 다만 당신이 혐오를 내비치는순간 혐오는 또 다른 혐오를 낳는다는것을 잘 알고있어야한다. 인터넷 여성혐오의 반발력으로 남성혐오 사이트인 메갈리아와 워마드라는 극페미니즘 사이트가 만들어졌다는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혐오의 감정들이 오히려 사회적 성숙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페미니즘은 초기에 여성들의 사회운동과 양성평등으로 이루어졌으나 많은 여성들에게 널리 퍼지지 못하였다. 하지만 혐오의 감정을 띄는순간 많은 여성들의 공감을받아 전사회적인 인 붐이 곧 나타났으며 이는 사회에 여성에대한 인권과 권익향상에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양비론적인 생각이지만 혐오의 감정을 가리거나 숨기는것 자체가 오히려 더욱 혐오스러운 감정을 압축하고있다고 생각한다. 혐오의 감정을 드러내되 그 방향은 혐오가아닌 전 사회적 합치가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감정이 나아가야한다고 본다. 예를들어 노인들에게 혐오적인 감정을 띄는 이유는 나이를 무기로 무례한 노인들과 꼰대들이 많다는 이유가 많다. 자 이 혐오적인감정을 가진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그

혐오를 그만두세요. 라고 말하는것이 과연 옳은일인가? 오히려 이는 노인들도 혐오의 감정을 사지 않기위해 노력해야하는 부분이 있다. 즉 혐오의 감정은 쌍방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해야한다는 점이다.

혐오는 마치 백혈병과 같다. 어떤 이유로 백혈병이 생기는줄 아는가?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백혈구가 이상증식, 미성숙 증식을 하여 백혈병이 생기는것이다. 이는 백혈구의 문제 때문이지만 본디 백혈구는 몸의 면역계를 지키는 세포이다. 이처럼 혐오가 만발한다면 백혈병과 같은 끔직한 일이 일어나겠지만 혐오의 조절과 사용방법에 따라 오히려 성숙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선정된 에세이는 자료집으로 제작 가능합니다.